

시론

빛 나는 국민가계

지난 해 우리 정부와 IMF간에 체결되었던 양해각서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이었다.

정부 부실채권 발행
가구당 352만원 부담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화해소를 위해서는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급선무로, 과거 차입위주의 자금조달에 익숙했던 기업들은 재무전략을 전환할 것과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체제개편을 할 것이며, 선단식 경영을 해체하고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투명한 기업경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최근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자금을 재정과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의 경영리더에 따르는 자율적 구조조정과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현대생활에서 매사는 돈·자본과 유리시켜 생각하기 어렵다. 3월말 현재 한국의 전 금융기관이 안

년 이후에도 기업부도가 잇따를 경우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삼아 중세봉건체제의 질곡에 반기를 들었던 18~19세기의 정치적인 시민혁명과 경제적인 산업혁명은 그 실행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새로운 모순을 잉태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고착화된 사회질서를 일소하여 체신시키는 작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고로 개혁의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이해와 양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며 역지사지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미 달성된 구조조정자금 중 상당부분을 금융권의 명퇴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폐쇄되는 종금사예금에 대한 이자까지 보상하는 부담까지 졌다 한다. 바로 이렇듯 국민부담이 되는 셈이다.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있는 관료·정치권의 무리한 지시에 복종한 금융기관과 여기에 기생하여 성장한 재벌간의 유착고리에서 파생되었음을 생각할 때, 그 관에서 화려한 주역을 담당했던



윤영자

(한국방송대학교수·경제학)

주체들의 책임은 어디에 가고 소외된 자에 불과했던 민초들만 느낀다는 빛잔치에 초대되어 외제부담 1인당 482만원에 덧붙여 내국채무부담까지 2중부담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잘못은 정치·경제·금융권
책임은 국민 몫이라니

어지러운 경제상황을 두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은폐한 채 책임에 대한 공방만이 식상할 정도로 달아오르면서 6·4 지자체 선거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밝은 희망의 경지로 뒤바꾸어 놓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어제의 과오가 끼친 오늘의 현실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연행에 책임을 지는 소신을 가져야 하고 유권자 역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숙언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채권은 훗날 화폐로 회수받을 수 있다 하여도 채권발행에 수반되는 이자는 별도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바로 이 이자 부담이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해 98년도 말까지 발생할 부실채권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국민부담은 1인당 88만원으로 4인가족을 1가구로 계산한다면 가구당 부담은 352만원에 달하는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내

열린마당

문화재 진품 해외전시

“지구촌에 한국문화 우수성 알린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우리문화재의 해외전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현지교민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월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24일까지 전시되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한국실 개관기념 ‘한국미술전’에 우리나라에서 1백21점의 문화재를 출품 전시해 한국문화의 독자적인 우수성을 문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해외전시를 자제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미지의 나라에 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처럼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중국과 일본은 현재에도 자국의 흥부수단으로 문화재 해외전시를 수없이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스스로 그 나라를 연구하고 찾아오게 하기까지 아직 갈길이 멀다.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을 적극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유수박물관에 문화재를 출품 전시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 문화재를 본 관람객들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다루는 직원들은 수집·포장·운송·전시 등 모든 과정에 혼신을 다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복제품은 일부 상업적인 목적의 예술품 전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문화교류일 경우 복제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거론되지 않는다. 눈요기거리의 될 수 있어도 작품의 진면목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세계유수박물관이 상실한국실을 설치하면서부터 개관특별전으로 우리문화재 대외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를 박물관의 대외전시는 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유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한국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만약 우리 누군가가 세계인이 드나드는 한 외국의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문화재가 어엿한 공간을 차지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면 그의 가슴은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얼마나 부풀어 오를 것인가!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손길은 업속하기까지 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진품의 해외나들이에 대해 의아해 하며 복제품 전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복제품은 일부 상업적인 목적의 예술품 전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문화교류일 경우 복제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거론되지 않는다. 눈요기거리의 될 수 있어도 작품의 진면목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세계유수박물관이 상실한국실을 설치하면서부터 개관특별전으로 우리문화재 대외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를 박물관의 대외전시는 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유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한국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만약 우리 누군가가 세계인이 드나드는 한 외국의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문화재가 어엿한 공간을 차지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면 그의 가슴은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얼마나 부풀어 오를 것인가!

“훼손가능성...복제품전시 검토를”

최희수 <국제신문 논설위원>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전에 출품될 국보 9점 등 우리 문화재 1백21점이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이들 문화재는 7개월 이상 장기 해외전시된다. 우리 민족혼이 실린 진품 문화재들을 이처럼 한꺼번에 대량으로 해외전시시킨 당국의 처사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의 경우 돌발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운송과정에서 훼손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문화재의 반출 규모는 ‘한국미술 5천년전’ 이후 최대규모이다. 그 품목도 고대부터 19세기까지의 한국문화를 망라한 것들이다. 특히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주조기술과 조각기술이 결출해 동양조각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재들을 그것도 진품을 대량으로 고스란히 내보낸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들 문화재의 안전수송을 위해서 특수포장 등 최선의 준비를 했고, 1천여원의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치밀해도 문화재는 손상되기 쉽고, 보험금이 많아도 한번 훼손되면 원상을 돌이킬 수 없다. 문화재를 제자리에 보존하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박



물관 관계자도 “괴를 말할 정도로 긴장과 걱정이 된다”고 말했는가.

대규모 진품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너무나 무모한 짓이다. 우리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효과보다 문화재를 함부로 다루는 것으로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 선진외국은 국소수의 진품만 출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복제품을 내보낸다. 국내에서 열렸던 ‘중국문화대전’도 복제품이 60%나 차지했다. 이집트는 “진품은 이집트에 와서 보라”는 방침이 확고하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전시도 자체 소장품 중심이 되도록 하면서 시기적으로 보완할 것만 도와주는 쪽이 바람직했다. 진품도 ‘한국미술 5천년전’ 영국·독일 순회전을 끝낸 뒤 더이상 대규모 해외전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여론을 수렴하여 한번 정해진 방침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당국은 해외전시보다 외국에 유출된 문화재들을 찾아오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인 복제기술도 적극 발전시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보급 문화재 미국행 방법

특수포장·경호원등 보호안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전시회에 출품될 우리 문화재는 아시아나항공이 준비한 항공기 3대에 나눠서 23·24일 이틀간 미국으로 운송됐다. 아시아나는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를 문화재 훼손이나 탈취 등 돌발상태에 대비, 특수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배터랑조종사를 배치하는 한편 경찰에 지원요청까지 했다. 유물은 우리 금속 종이 등 문화재 재질에 따라 10개로 분류, 특수포장을 했다. 쉽게 해체될 수 없는 목재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특수 포장박스에 넣어졌는데 박스는 개당 1백만원으로 일반 제품보다 50배나 두꺼워 일정한 온도유지가 가능하다. 박스들은 램(RAP)컨테이너 3대에 나눠 탑재된 뒤 아무나 개폐할 수 없도록 납땜으로 봉인됐다. 문화재관리국은 전담직원 6명을 선발, 문화재 운반부터 포장, 탑승, 메트로폴리탄 인도 등에 이르는 모든 수송과정에 동행, 입회했다. 아시아나는 국보급 문화재나 고가품을 노리는 범죄단체들의 표적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품명과 포장, 개수 등을 암호로 사용, 미국 현지 관계자들과 교신하기도 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문화재들의 안전수송 및 전시를 위해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와 1천여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문가들은 유물의 실제가격을 보험가의 두배인 2천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이 23일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보낼 문화재를 무전동차에 싣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간의 문화재 교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EXPO 70’이 처음. 그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22점의 우리 문화재가 대외전시돼 세계인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것은 ‘한국미술 5천년전’ 76년 일본의 도쿄·교토·후쿠오카(3백48점·5개월간), 79년 미국의 워싱턴·뉴욕 메트로폴리탄·샌프란시스코(2백54점·2년5개월간), 84년 유럽의 영국·독일(3백34점·11개월간) 등을 순회전시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가 당당히 제자리를 찾게 됐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순회전시는 같은 동아시아권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 설치로 가시화했다.

문화재 국제교류현황

1970년 日엑스포 22점 첫선
美·유럽등 총 81회 나들이

현재 한국문화재의 해외전시는 총 81회로 일본이 43회로 가장 많았다. 미국 23회·유럽 14회·대만 1회 순이다. 그중 80년 일본 오사카 등에서 열린 ‘한·일고대문화교류전’에 7백여점의 유물이 출품됐다. 반면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는 총 20회로 실크로드미술전(91년), 스키타이 황금전(91년) 등이 눈길을 끌었음 뿐이다.

이와같은 문화재의 해외전시는 강대국보다는 약소국가들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 소개한다는 의미 외에 양국간의 우의를 다지며 긴밀한 경제협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윤기석 기자)

왜, 침묵했는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세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나
가짜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이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니도 모르는 내 마을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저음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856

